

2위 - 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삼고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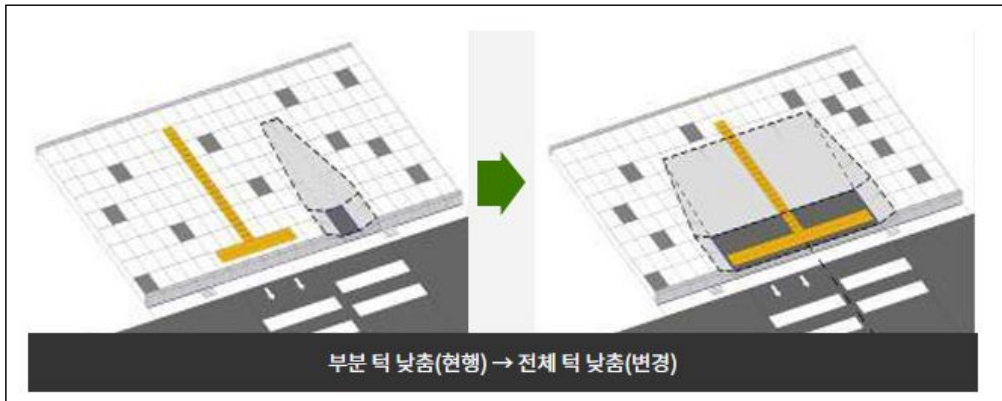
## 2021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제언하는 내용의 주제	<p>청소년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전동킥보드, 자전거)을 위한 턱없는 인도 만들기</p>																					
제언이유	<p>○ '킥라니'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위협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공유경제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유자전거(서울자전거 따릉이 등),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겨났다. 대중교통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만 있었던 지역의 경우 단거리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p> <p>○ 그러나 자전거나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은 아직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도내 열악한 상황을 전수조사해서 매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 등의 보수공사를 할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다.</p>																					
현황 및 문제점 분석	<p>○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사이에 18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에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삼성화재 접수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와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구분</th> <th style="font-size: small;">2016년</th> <th style="font-size: small;">2017년</th> <th style="font-size: small;">2018년</th> <th style="font-size: small;">2019년</th> <th style="font-size: small;">2020년</th> <th style="font-size: small;">2021년 5월</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발생건수</td> <td>49</td> <td>181</td> <td>258</td> <td>890</td> <td>1,447</td> <td>777</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피해금액(천만원)</td> <td>18.4</td> <td>81.8</td> <td>88.9</td> <td>230</td> <td>366.1</td> <td>159.1</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삼성화재)</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일부내용)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p> <p>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p> </div> <p>○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그 중 전용도로는커녕 인도 위에 임의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는 불법주차와 각종 장애물이 즐비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취미나 레저 수단 정도로 여기고 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정책, 행정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교차로와 연계되어 있는 도로(인도) 일대의 인도 폭 및 자전거 도로 폭이나 상태 등이 이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도 턱(인도와 도로를 이어주는 경계석의 높이차)이 높아서 이동의 불편함을 겪거나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발생건수	49	181	258	890	1,447	777	피해금액(천만원)	18.4	81.8	88.9	230	366.1	159.1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발생건수	49	181	258	890	1,447	777																
피해금액(천만원)	18.4	81.8	88.9	230	366.1	159.1																

**가. 보도턱을 낮추거나 경사로 구조물 설치**

- 보행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거나 이면도로 접속구간 등 전체 턱 낮춤이 어려운 경우 경사로 구조물을 설치해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 단,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통행인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2012년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전체 턱 낮춤 정책에서>



- 최근 강원도 춘천시도 '장애인 인지적 정책 조례'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80여 개 상가, 상점에 경사로 설치)하기도 했다. 이는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제언하는  
정책의 내용



	<p>(일부내용) 인제군이 이동약자들을 위해 시가지 인도 턱을 없앤다. 군은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석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캐리어 등의 이용자와 보행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석 낮추기 정비 공사를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우선 이동이 빈번한 인제읍사거리~인제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도 교체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인도·차도의 경계석 낮추기, 보도블록 경계석 낮추기 등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다음 달 중 마무리된다. 군은 앞으로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중심으로 턱없는 인도를 만들기 위해 연차별 추진방안을 수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준보다 높게 설치돼 이동약자들이 걷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lt;2021.5.17. 강원일보&gt;</p> <p><b>나. 청소년(시민)모니터링 활동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시민참여'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제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장소를 알아보고 보도블록 전면 교체 및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또한 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보도환경 개선)을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li> </ul> <p><b>다. 기타 관련 제도개선 및 사고예방 교육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턱을 맞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다'는 관련법 준수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유형을 교육하여 철저한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li> </ul>
<p><b>예산확보 및 예산소요예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 계획 :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li> <li>- 향후 신규 건축물 허가 기준에 경사로 확보가 필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li> <li>○ 예산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부산시 '사람 중심 보행 도시 만들기' 2019년 사업비 15억</li> <li>- (예시) 인제군 2021년 사업비 8천만원</li> <li>- 예시를 토대로 신규공사가 아니라면 '문턱경사로(고무)' 개당 × N개소 설치를 목표로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 거 같다.</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턱이 없어짐에 따라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양육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i> </ul>
<p><b>참고자료 및 출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헬멧 없이 뺑뺑...위험천만 '공유 킥보드'</li> <li>2. 춘천시, 2019년도 교통문화지수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13위</li> <li>3. "문턱부터 없애자" 춘천시 장애인 장벽 없는 도시 조성</li> <li>4. 천안시, 어린이공원 보행약자 위해 '보도 턱' 없앤다</li> <li>5. 동작구, '보도턱 낮추고 경계석 연결하고'... 막힘 없는 보행길 조성 <a href="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957">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957</a></li> <li>7. 영등포구, "자전거 사고 막자"...경계석 뺀고 시선유도봉 설치</li> </ol>